

한전KDN, 영광 열병합발전소 건립 참여

업무협약 체결...600억원 규모 EPC사업 수행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발전 도움 될 것 기대”

한전KDN이 600억원 규모의 전남 영광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에 참여한다.

한전KDN은 10일 영광 흥농읍 소재 자사 사업장에서 영광열병합발전(주), 신한BNP파리비자자산운용(주)와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훈 한전KDN 에너지사업처장과 김상중 영광열병합발전(주) 대표, 장성수 신한BNP파리비자자산운용 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DN은 향후 진행 예정인 600억원 규모의 영광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EPC(설계·자재조달·시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시행사로 행정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신한BNP파리비자자산운용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게 된다.

건립 예정인 영광 열병합발전소는 생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적극 부응하는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훈 한전KDN 에너지사업처장은 “향후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되면



10일 영광 흥농읍 소재 한전KDN 사업장에서 이훈 한전KDN 에너지사업처장과 김상중 영광열병합발전 회장, 장성수 신한BNP파리비자자산운용 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동구, 지하철 복합재난 화재 발생 현장훈련

광주 동구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인 지난 9일 용산동 용산차량기지에서 '지하철 복합재난 화재 발생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치단체 평가에서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에서 유일하게 시범실시했다.

이날 광주도시철도공사,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유관기관과 동구청 6개 부서에서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테러범에 의한 소태역 폭탄테러로 열차 내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다수의 사상자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서구,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실시

광주 서구가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8일 '사회적협동조합 실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기관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베이비붐세대 은퇴자가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재능 나눔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3월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공익적 사회서비스 확대를 희망하는 참여기관 12개 기관과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22명을 최종 선발했다.

남구, 풍수해 보험 가입 팔 걷고 나서

광주 남구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세입자는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에 팔을 걷고 나섰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소유주 및 세입자)이 보험 가입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보험료는 2만2,000원(면적 80㎡ 기준·면적에 따라 상이) 안팎 수준이며,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세입자는 무료로 보험에 들 수 있다.

북구, 중·장년층 퇴직 전문인력일자리 창출

광주 북구가 은퇴한 전문 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북구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인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재능나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퇴직자가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그동안 쌓은 전문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3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신청자를 모집, 지난달 30일까지 사업수행기관으로 (사)지역미래연구원(대표 정담)을 선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광산구, 오월문화제 광산문예회관서 개최

광주 광산구가 30일까지 광산문예회관에서 '2018 광산오월문화제'를 연다. 광산오월문화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광산 출신 윤상원 열사를 기리고, 시민 생활공간인 마을에서부터 오월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광산구가 이어온 행사.

광산오월문화제 기간 동안 광산문예회관 로비는 '오월 전시'로 채워진다. 전시를 위해 고려고 문진성 학생은 '윤상원 열사의 꿈을 그리다' 주제로 열사의 고향인 인곡동 전동마을 사람들을 그렸다. 아울러 재독화가 정영창 화백 작품 <윤상원>도 함께 전시된다.

광산오월문화제 관람료는 무료이고 광산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833)에서 한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7월6일까지, 1999곳 대상 시설물 파손·장애물 등

광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1999곳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동주택,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상태, 관리주체의 설치 검사와 정기시설 검사 이행,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시설물 파손과 장애물, 구조물 변형 상태 등을 집중 살핀 예정이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관리주체 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에 이어, 민간전문가와 각 구청 담당공무원 합

동 표준점검 시 주관 종합실태점검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정조치하고, 장기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마칠 때까지 사용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세월호 육상거치 394일 만에 직립까지 “매 순간 고비였다”

누워있던 세월호가 10일 바로 세웠다. 지난해 4월 11일 전남 목포 신항에 세월호 선체를 육상 거치한 후 394일 만이다.

세월호 육상거치부터 직립(直立)까지 과정은 매 순간이 고비였다. 지난해 4월 28일 세월호 우현을 통해 3·4층 객실에 처음 진입한 뒤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졌다.

작업자들이 선체 내부로 들어가 퍼낸 진흙을 세척하면서 손으로 유골을 찾는 방식이다.

3~5층 객실 구역과 화물칸에 대한 수색이 2차례 진행됐다. 동시에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진행했다.

5월 5일 침몰 해역에서 사람뼈 추정 유해가 발견된 이후 10일에는 선체 수색에서 유해 2점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6개월이 넘는 수색 기간 동안 단원고 고창석 교사, 단원고 조은화·허다운 양, 이영숙 씨 유해를 수습했으며, 영결식 및 추모식을 가졌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의 유해는 찾지 못했다.

목포 신항에 머물러 왔던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을 가슴에 묻겠다”며 수색 현장을 떠났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11월 22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사람의 유골로 추정된다는 현장 감식결과를 통보 받고도 미수습자 가족이나 선체조사위원회에 즉시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신 미수습자 가족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 8일 해수부는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 감식결과, 유골 발견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호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이들이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크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선조위는 지난 2월부터 세월호 직립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옆으로 누워있어 들여다볼 수 없었던 세월호 좌현에 대한 미수습자 수색과 진상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선체 직립 후 내달 14일까지 보강작업이 마무리 되면, 3주간의 수색 준비를 거쳐 7월 초 미수습자 수색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479명 발표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479명을 10일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초졸은 33명이 응시해 30명이 합격, 90.9%의 합격률을 보였다.

중졸은 131명이 응시, 101명이 합격해 77.1%의 합격률을, 고졸은 520명이 응시, 348명이 합격해 66.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고 득점은 초졸 98.33점, 중졸

98점, 고졸 99.42점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이모(73·여)씨, 중졸 이모(66·여)씨, 고졸 오모(67·여)씨가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유모(11)군, 중졸 김모(13)양, 고졸 유모(13)군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10일부터 25일까지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나주·장성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
- ▶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